아시안컵 축구 소식

"바레인 첫 승 제물로"

베어벡호 15일 D조 2차전 필승 다짐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쉽게 무승부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바레인을 첫 승의 제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나섰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오후 '중동의 강호' 사우디와 치른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억울한 페널티킥 한방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베어벡호는 조 1위를 차지해 자카르타에서 8강전까지 치르고 베트남에서 결승전 진출을 다투겠다는 애초 목표달성을 위해 바레인과 2차전(15일·밤 9시45분)을 체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대승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랭킹 51위 한국은 바레인(100위)에 무려 49계단이나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역대 전적에서도 9승3무1패를 거두는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태극전사들은 사우디를 잡고 편하게 조 1위를 순항하겠다는 계획에 수정이 필요해진 만큼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바레인과 2차전 준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태극전사들은 10일 치러진 인도네시아-바레인전을 TV로 지켜보면서 바레인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코칭스태프도 지난달 27일 치러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평가전의 비디오 분석작업을 통해 필승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또 베어벡 감독과 압신 고트비 코치는 인도네시아-바레인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바레인의 '약한 고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사우디전 첫 골의 주인공 최성국(울산)은 "체력적으로 바레인을 앞선다는 점을 공략포인트로 잡아야 한다"며 "바레인 선수들의 발 기술과 조직력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주장 이운재(수원)는 "사우디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며 "바레인을 반드시 이기고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어벡 감독은 바레인 공략법에 대해 "지도자로서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릴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뒤 "바레인-인도네시아전에서 많은 것을 봤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11일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D조 1차전에서 선제골을 성공시킨 최성국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 막판 한국수비 불안"

한국체대 분석팀

18년 무승의 한을 풀기 직전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베어벡호가 최성국의 헤딩 선제골로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침내 무너뜨리는 듯 했지만 뼈아픈 페널티킥을 허용해 안타깝게 무승부에 그쳤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후반 21분 최성국의 헤딩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2분 야세르 알카타니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한국과 사우디는 바레인을 2-1로 꺾은 홈팀 인도네시아에 이어 조 2위에 머물렀다.

47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으로선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게 두고두고 사무칠 한 판이었다.

한편 베어벡호는 이날 경기 중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지만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 수비 불안이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체대 분석팀은 패스연결망 시스템으로 한국-사우디전을 분석한 결과 전반 10분 안에 한국의 위협적인 공격은 0%였던 반면 수비력이 지수 50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불안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선수들이 11일 캐나다 브리시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서 열린 FIFA 20세이하(U-20) 월드컵 축구 토너먼트 16강전에서 브라질을 4-2로 물리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삼바군단' 꺾고 8강

120분 혈투 끝 4-2 역전승

U-20 월드컵 축구

스페인이 120분 간 혈투 끝에 '삼바군단' 브라질을 제압하고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대회 8강에 올랐다.

스페인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먼저 두 골을 내줬지만 승부를 연장까지 몰고 가 4-2 대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39분 레안드로 리마가 몸을 날려 그림 같은 가위차기로 골문을 연 뒤 2분 만에 알레산드로 파투의 헤딩골이 터지며 브라질이 손쉬운 승리를 낚는 듯했다.

하지만 스페인의 저력은 무서웠다. 전반 43분 제라드 피케의 몸에 맞고 굴절된 행운의 득점으로 한 점을 따라붙은 스페인은 후반 39분 하비 가르시아가 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상대 수비가 채 갖춰지기 전 오른발로 꽂아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상승세를 탄 스페인은 연장 전반 12분 알베르토 부에노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연장 후반 종료 직전 아드리안 로페스의 추가골로 8강행을 마무리 지었다.

스페인-체코, 미국-오스트리아의 8강전은 오는 15일 열린다.

국민은행축구팀 이도권 헝가리 프로 1부리그행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고양 국민은행의 공격수 이도권(28)이 헝가리 프로축구 1부리그 우이페스트에 입단했다.

이도권의 에이전트사인 JIW 인터내셔널의 홍이삭 대표는 12일 "이도권이 헝가리 우이페스트에서 지난 일주 동안 입단 테스트를 받은 뒤 오늘 2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우이페스트 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도권과 2009년 6월30일까지 계약했다고 알렸다. 우이페스트는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클럽으로 통산 정규리그 20회, FA컵 8회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 브라질과 우승 다툼

멕시코에 3-0 완승…결승행

코파아메리카컵 축구

'남미 축구 양대 산맥'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2007 코파아메리카컵 축구대회 결승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오르다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북중미 초청팀 멕시코와 격돌한 대회 준결승전에서 전반 45분 왼쪽 풀백 가브리엘 에인세의 선제 결승골에 후반 리오넬 메시의 추가골과 후안 로만 리켈메의 페널티킥 쐐기골이 터지며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전날 또다른 준결승에서 우루과이를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꺾은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과 16일 오전 마라카이보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우루과이와 멕시코의 3~4위전은 하루 앞선 15일 카라카스에서 치러진다.

아르헨티나는 3통산 15번째 우승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스포츠쥬게

13일(금)

▲메이저리그〈토론토-보스턴〉(07 : 55·Xports)

▲FIFA U20 월드컵 16강전〈칠레-포르투갈〉(08 : 35·SBS스포츠)

▲제29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13 : 00·KBSN Sports)

▲프로야구〈삼성-현대〉(18 : 00·KBSN Sports), 〈LG-KIA〉(18 : 30·MBC ESPN)

▲아시안컵〈이라크-호주〉(19 : 10·X-ports), 〈UAE-일본〉(22 : 25·SBS스포츠)

▲피스컵축구〈레딩-리버플레이트〉(20 : 00·MBC ESPN)